

장백산천지

2021년 5월 23일 제 407기 일요일

2021년 5월 22일 까지 해외 대기원 사이트를 통해 중공의 당, 단, 대 조직 탈퇴를 성명한 인원:

3억 7771만 명



▲ 5월 7일 오전, 세계유명한 관광도시 나이아가라폴스 시티가 시청 앞 게양대에 ‘세계 파룬따파의 날’ 깃발을 게양했다. 오른쪽 그림은 깃발 게양을 경축하는 파룬궁수련생.

세계 정계 요인들은紛紛히 파룬따파 (法輪大法) 기념일을 표창하여 홍전 29 주년을 축하

[명후이왕] 파룬따파는 리 홍즈 (李洪志) 선생이 1992년 5월 13일에 중국 장춘에서부터 전하여 현재 이미 세계 100여 개 나라와 지역에 널리 전해졌다. 금년 5월 13일은 파룬따파가 세계에 홍전된지 29주년 기념일이자 제 22회 ‘세계 파룬따파의 날’이기도 하다. 세계 각국 정계 요인들은紛紛히 포상과 축하편지를 발표하였다.

‘파룬따파의 날’을 경축해 캐나다 10여개 성시에서 국기 게양대에 동시 게양 및 조명 방식으로 경축

2021년 5월, 캐나다 10개 시, 진 정부는 일종 특별한 방식 _ 국기 게양대에 게양 혹은 랜드마크 빌딩 조명 방식으로 ‘5.13 파룬따파의 날’을 경축하고, 파룬따파가 사회와 시민에게 가져다준 혜택에 경의를 표했다.

5월 7일 오전 11시경, ‘세계 파룬따파의 날 (FALUNDAFA

DAY)’, ‘진선인 (Truthfulness, Compassion, Tolerance)’이 인쇄된 깃발이 나이아가라폴스 (Niagara Falls) 시청 앞 국기 게양대에 캐나다 국기, 온타리오 주기와 나란히 게양됐다. 이는 올해 캐나다에서 파룬따파의 날 깃발을 게양한 첫 번째 도시이다.

캐나다 정계 요인 ‘진선인 (真善忍)’을 기억할 것을 호소

캐나다 온타리오 주 수십명 정계요인이 축하편지를 보내 ‘세계 파룬따파의 날’을 축하하고, 파룬궁수련생들이 ‘진선인 (真善忍)’신념에 대한 견지를 찬성하고, 그들이 전염병앞에서 헌신의 노력에 대해 감사를 표했다. 정계요인들은 캐나다 민중들이 ‘진선인 (真善忍)’을 기억해 생활에 융합시킬 것을 호소했다. 온타리오 주 밀턴시와 콘월시는 5월 13일을 ‘파룬따파의 날’로 선포했다.

온트리오 주 킹스턴시 의원 오사니키는 축하편지에서 “파

룬따파수련자가 전시한 선량과 인내심은 전세계 수많은 민중을 감동시켰습니다.” “진선인 (真善忍) 보편적 가치는 현시대에서 가장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병독의 대유행은 우리 많은 사람들에게 불안, 고립과 고독감을 주기 때문입니다. 당신들이 인터넷에 파룬따파 과제를 제공해 주어 우리의 정신, 도덕과 신체건강 측면에서 (제고하게) 도움을 준 것에 대해 감사드립니다.”

축하편지의 제일 마지막에 오사니키 의원은 자신도 파룬궁수련을 시작하겠다고 표시했다. “저는 이미 5월 1일의 파룬따파 인터넷에서 가르치는 공법에 등록했습니다.” **스위스 110명을 초과한 정계인사들 축하편지로 ‘파룬따파의 날’을 경축**

스위스 110명을 초과한 정계인사들은 축하편지를 보내 제 22회 ‘세계 파룬따파의 날’을 축하했다. 스위스 연방국회의원, 주, 시의원들은紛紛히 지지편지에 서명하였는데 5월 9일까지 110명 정계인사가 서명하였고 지 (2면에 계속)

(1 면의 계속) 금도 서명인수는 계속 증가되고 있다.

그들은 편지에서 “몇십년래 파룬따파수련생들은 평화롭고 용감하게 중공의 멸절운동과 인권침범의 행위에 대해 끝임 없이 폭로했습니다. 1999년 7월, 전중공영도자 강택민은 이 정신적수련을 공산주의 의식형태에 대한 위협으로 여겨 한차례 전례없는 박해운동을 발동했습니다. 그중 파룬궁수련생의 신체에서 생체 장기적출도 포함됩니다.”

“치가 떨리도록 사람을 화나게 하는 잔혹한 박해 앞에서도 파룬궁수련생들은 선의 힘을 담은 신앙을 견지했고, 심지어

고문 박해를 받으면서도 선량을 지켜왔으며 고문을 실시하는 악인들을 적대하거나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여태껏 펼쳐온 길은 광명이 가득한 대선의 길이였으며, 아울러 우리를 더욱 아름다운 세계를 향하도록 고무했습니다.”

“세계는 ‘진선인(真善忍)’보편적 가치가 필요합니다. 이는 역경과 고통을 이겨나갈 수 있는 힘을 주어 미래와 인류에 더욱 아름다운 희망을 가져다 줍니다.”

독일 블랙포리스트 4 급의회 의원으로 부터 온 축하편지

유럽 의원 미셀 가라엘은 파룬궁수련생의 경축집회에 친히

참석하여 발언했다. “이는 곧 여기에서 ‘세계 파룬따파의 날’을 기념하는 원인입니다. 세계 자유구역의 사람들은 일어나 인권을 보호하기위해 소리를 내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이는 정확하고 중요합니다. 나는 파룬따파수련자들이 모든 것이順利로울 것을 축원합니다. 중공의 박해가 하루빨리 결속되기를 희망합니다!”

중공은 1999년 7월부터 파룬궁탄압을 시작해 파룬궁수련생에 대해 잔혹한 박해를 했고, 온갖 루머와 비방을 퍼뜨렸으나 파룬궁의 신속한 전파를 막을수 없었고 파룬따파가 사회에 복을 준 사실과 공헌을 말할할 수 없다.

한국 파룬궁 수련생, 전국 각지에서 ‘세계 파룬따파의 날’ 경축

[명후이왕] 2021년 5월 13일은 파룬따파 [法輪大法, 파룬궁(法輪功)]이라고도 함]가 전 세계에 널리 전파된지 29주년이 되는 기념일이자, 제22회 ‘세계 파룬따파의 날’이며, 또한 파룬궁 창시인 리홍쯔(李洪志) 사부님의 70세 생신이기도 하다. 매년 5월 13일, 한국에서는 전국 수련생들이 서울에 함께 모여 사부님의 생신을 축하드리고 대행진 등 경축 행사를 해왔는데, 작년과 마찬가지로 올해에도 무한 폐령의 영향으로 전국 수련생들이 함께 하는 대형 행사를 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

지난 5월 13일, 서울 서부와 중부 일부 파룬궁 수련생들은 아침부터 신세계 백화점 대형 분수 앞에서 현수막과 홍법 보드판을 설치하고 단체 연공을 하며 지나는 시민들에게 전단을 나눠주고 파룬궁을 소개했다.

5월 13일, 수련생들은 정부 지침에 따라 서울, 대구, 부산, 광주, 제주, 창원 등 각 지역에서 소규모 단위로 모여 단체 연공을 하고, ‘세계 파룬따파의 날’을 위해 특별히 제작한 전단 등을 시민들에게 배포하면서 파룬따파를 알리는 활동을 전개했다.

서울 여러 곳에서 진행된 경축 행사

서울 5.13 경축 행사는 명동 신세계 백화점 앞, 서초구 양재천, 여의도 한강공원, 영등포구 대림동 등에서 진행했다.

신세계 백화점은 서울 중심부인 명동에 위치한 최고급 백화점으로서 주로 최상층의 주류인사들이 이용하는 곳이다. 인근에 주한 중

국대사관이 있고 바로 앞에는 한국의 발권 중앙은행인 한국은행이 자리잡고 있으며, 그 가운데에는 대형 분수가 있어 해외에서 서울을 찾는 관광객들이 즐겨 찾는 명소다.

이날 아침부터 서울 서부와 중부 수련생들은 현수막과 홍법 보드판을 설치하고 단체 연공을 하며 지나는 시민들에게 전단을 나눠주고 파룬궁을 소개했다. 점심 무렵, 사부님의 생신을 축하드리는 단체 사진을 촬영할 때에는 분수대에서 시원스럽게 분수가 뿜어져 나와 싱그러운 분위기를 자아내게 했다. (3면에 계속)



(2면의 계속) 마침 평일이어서 점심시간이 되자 많은 직장인이 나와 아름다운 단체 연공 모습을 지켜보았다. 5년째 서울신내동에서 수련하고 있는 이주현(44세) 씨는 파룬따파가 널리 전해진 기념일을 맞아 자신의 인생을 절망에서 희망으로 바꿔 주신 사부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그녀는 가정에서 짜증을 잘 내고 화를 자주 내는 성격이었는데, 수련 이후에는 마음의 안정을 되찾아 화를 내지 않게 됐고, 가족들과도 화목하게 지내게 되었으며, 지난해부터 아버지가 수련을 시작했다는 것이 무엇보다도 기쁜 일이라고 얘기했다.

그녀는, 파룬따파가 너무 좋은 수련법이기에 앞으로 더욱 열심히 수련하면서 보다 많은 주변 사람들에게 열심히 파룬따파파를 전하겠다고 다짐했다.

대한노인회 회장, '파룬따파의 날' 축하 보내

김 회장은 10여 년 전 처음 전단을 받아 차에서 읽어보고 파룬궁에 대해 알게 됐는데, 중국에서



▲대한노인회 김호일 회장(가운데)과 파룬궁 수련생들.

중공이 파룬궁 수련생들을 잔혹하게 탄압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는 경악을 금치 못했다고 했다.

김 회장은 또 파룬궁이 신체 건강에 유익할 뿐만 아니라 정신을 맑게 하는 좋은 점이 있기에 널리 보급됐으면 하는 마음을 갖고 있다면서도, 중공의 파룬궁 탄압에 대해선 “선량한 사람들을 박해하는 일은 절대로 없어야 한다”고 말했다.

대한노인회는 전국에 16개의 시도 연합회와 244개 지회, 2256개 분회와 6만 6929개의 경로당, 미국 등 해외 15개국의 20개 해외지부와 850만 명의 회원을 거느린 전국 단위의 대조직이다.

🌸 폐암 말기에 신앙이 나에게 기적을 가져다준다 🌸

[밍후이왕] 저는 료녕성 동부 산간 지역에 사는 농촌 여성입니다. 2020년 추수할 때, 힘이 없고 나날이 여위어 몸무게가 두 달 만에 20kg 나 빠졌습니다. 나중에는 숨도 쉴 수 없어 아예 일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바로 병원에 갔고, 검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폐암 말기입니다. 정말로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습니다. 의사가 전염될 수 있으니 집에 가면 가족과 격리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원래 집에서 제가 식사 준비를 모두 했었는데, 이번에는 남편이 손자에게 전염될까 봐 자신이 직접 밥을 차리기 시작했습니다. 남편이 매일 밥을 짓고, 어린 손자도 돌봐야 해서 지쳐서 화를 냈고, 많이 여위었습니다.

남편이 “당신 병원에 가서 치료받아. 그러지 않으면 우리가 이 집에서 어떻게 살겠어.” 하며 울면서 말했습니다. 남편은 원래 강인한 사람으로 지금껏 눈물을 흘린 적이 없어서 이걸

정말 슬펐습니다. 의사는 두 달을 더 기다렸다가 수술을 해야 한다고 했고, 저는 수술을 하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우리 시골에서 수술 돈 몇십만원이 어디 있겠습니까? 남편이 “그럼 당신 대법을 배워봐!”라고 말했습니다.

1999년 ‘7.20’ 중공(중국공산당)이 파룬궁을 박해하기 전, 올케가 파룬궁을 수련하여 저도 따라서 했습니다. 수련 후 두드러기가 다 나았고, 이후에도 재발한 적이 없습니다. 얼마 안 돼 중공이 미친 듯이 파룬궁을 탄압했습니다. 시댁에서 연루되는 것을 두려워하여 저에게 수련하지 못하게 했고, 다른 파룬궁 수련생과 접촉하지 못하게 했습니다. 올케가 수련을 견지하여 저에게 파룬궁 진상 자료를 보내주었습니다. 그러나 남편은 제게 보이지 않고 진상 자료를 모두 숨겨놓았습니다. 이번에 정말로 방법이 없자 남편이 파룬궁을 상기시켰습니다. 제가 방에서 보존된 대법책을 찾아내 책을 펴보았고,

사부님의 법상이 보여 저는 울었습니다. 저는 바닥에 무릎을 꿇고 사부님께 “사부님, 살려주십시오!”라고 빌었습니다.

저는 마음속으로 “파룬따파 하오(法輪大法好), 찌싼런 하오(真·善·忍好)” 세 번을 읽고 한숨 돌릴 수 있었습니다. 이튿날 아침! 기침을 하니 두 조각의 과자 모양을 한 단단한 것을 토해냈습니다. 저는 사부님께서 저의 암을 제거해주셨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날부터 법공부와 연공을 하기 시작했고, 매일 아침 4시에 일어나 연공을 견지했습니다. 모든 좋지 않은 증상이 다 사라지고 병이 모두 나았습니다. 사부님께서 저에게 두 번째 생명과 온전한 가정을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제자는 반드시 사부님께서 살려주신 은혜를 저버리지 않겠습니다. 앞으로 사부님을 따라 끝까지 수련하겠습니다.

사부님께 절을 올립니다!



진귀한 보물

때로 사람은 주변의 가장 소중한 물건을 알아보지 못하고 잃게 되며, 또 어떤 사람은 도를 깨달아 행운아가 된다.

[명후이왕] 한나라 연화(延和) 3년 봄, 한무제가 안정(安定) 왔다는 기록이 ‘선전습유’에 기재되어 있다. 서호 월지국(月支國) 국왕은 13년 동안 말을 타고 큰 사막을 지나 먼 여행길에서 간난신고를 겪으며 ‘반생향(返生香)’과 각종 요괴를 막을 수 있는 맹수 등 두 가지 보물을 얻었다.

월지국 왕은 사자(使者)를 한무제에게 파견해 그 두 가지 보물을 바쳤다. 한무제는 선사 받은 ‘반생향’을 보물로 여기지 않고 궁 밖 창고에 보관하게 했고, 맹수는 상림원(上林苑)에 보냈다. 상림원의 호랑이가 맹수를 보고 두려워하며 움직이지 못했다. 이튿날 사자(使者)와 맹수는 모두 사라졌다.

시원원년(始元元年)에 경성에 역병의 창궐로 죽은 사람이 절반이 넘었다. 한무제가 월지국에서 준 신향(神香)을 성에서 피우자, 신기하게도 죽은지 삼일이 넘지 않는 사람은 모두 살아났다. 그 향기는 3개월이 지나도 사라지지 않았다. 한무제는 그제야 신향이 진귀한 보물이라는 것을 알게 되어 남은 신향을 한 상자에 넣어 소중히 보관했다. 어느 날 생각이 나서 상자를 열어보니 신향은 모두 사라지고

없었다! 한무제는 신령이 준 진귀한 보물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

때로 사람은 주변의 가장 소중한 물건을 알아보지 못하고 잃게 되고, 또 어떤 사람은 도를 깨달아 행운아가 된다.

여기에 또 하나의 한 차례 특수한 경매에 대한 서방의 이야기가 있는데 똑같은 도리를 말했다.

예전에 한 사람이 먹고 입을 것을 절약해 자신이 좋아하는 그림을 수집해 많은 명품을 소장했다. 어느 한해 그 나라에 전쟁이 일어났고, 그의 유일한 아들도 참군했다. 얼마 후 이 부친은 아들이 전쟁터에서 전사했다는 통지를 받았다. 그의 아들은 이미 안전지대로 피해 있었으나, 상처를 입어 피하지 못한 전우를 보고 뛰쳐나가 전우를 한 사람씩 업어 안전지대로 옮겼다. 마지막 한 전우를 업었을 때 그는 한알의 총에 맞아 전사했다.

아들이 죽은 후 첫 번째 성탄절 날 출입문 벨이 울렸다. 문을 열어보니 한 젊은이가 서 있었다.

그는 “당신은 나를 알아보지 못할 것입니다. 나는 당신 아들이 전사할 때 그의 등에 업혀 있던 부상병입니다.” 젊은이는 눈시울을 붉히며 말했다. “나는 가난하기 때문에 값진 물건을 선물할 수가 없습니다. 당신이 예술을 좋아한다는 말을 당신 아들한테서 들었습니다. 비록 나는 화가는 아니지만, 당신의 아들이 나의 생명을 구해준 은혜에 보답하기 위해 한 폭의 초상화를 그렸습니다. 당신이 받아주시기를 바랍니다” 라고 했다.

전사자 아버지는 초상화가 들어 있는 포장을 한 층 한 층 벗겨낸 후 젊은이가 그린 아들의 초상화를 손에 들고 벽난로에 걸려 있던 명화를 내려놓고 대신 아들의 초상화를 걸었다. 아버지는 눈물을 흘리면서 말했다. “젊은이, 이것은 가장 소중한 나의 소장품으로 될것ियो. 이것은 내가 소장하고 있는 어떤 것보다 값질것ियो”라고 말했다.

1년 후 아버지가 세상을 떠났고, 그가 소장하고 있던 모든 그림이 성탄절에 경매됐다. 첫 번째 경매품은 그 아들의 초상화다. 하지만 모두 기대하는 것은 명품 그림이었다. 여러 사람은 경매사에게 명화를 경매에 부치라고 요구했다. 경매사는 “먼저 이 초상화를 경매해야 계속 진행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때 한 노인이 일어나 말했다. “10 달러면 됩니까? 이 돈은 내가 가지고 있는 전부입니다. 나는 이 화폭의 주인공을 알고 있습니다. 그는 전우를 구하다가 희생됐습니다.” 경매사는 된다고 말했다. 사람들이 “본제”로 들어가기에 기다리고 있을 때, 경매사는 청중을 향해, 경매에 참여해준 데 대해 거듭 감사하다고 하면서 “오늘의 경매는 여기까지”라고 말했다. 사람들은 모두 놀랐다. 정품은 왜 하나도 경매하지 않느냐고 하자, 경매사는 “소장자인 전사자 아버지의 유언에 따라 아들의 초상화를 구매하는 사람에게 모든 소장품을 함께 증정한다.”고 엄숙하게 말했다.

명품수집가들이 앞다투어 경품구매를 기다리고 있었지만, 뜻밖에 한 노인이 10 달러로 산 초상화가 모든 전시품에서 가장 비싼 작품이란 것을 생각지 못했다.

연변 박해 소식

■ 2021년 5월 15일, 도문시 파룬궁수련생 왕후이(王慧), 류테전(刘铁军), 장쑤친(姜淑芹), 동수롱(董书荣), 진링(金玲), 주씨, 뻘씨, 쩡씨 등 파룬궁수련생이 도문시국보대대에 의해 납치됐다. 주씨수련생은 당일 집에 돌아왔다고 한다.

■ 화룡 파룬궁수련생 리제(李杰)와 장량잉(张良英)이 진상자료 배포중 경찰에 의해 납치됐다.